

-(으)ㄴ/는 셈이다

~인 셈이다 — 사실상 그렇다

정확히 그렇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가깝다는 뜻입니다. 셈은 ‘계산’이라는 뜻으로, 따져 보니 거의 그렇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품사	형태	예
동사, 현재	-는 셈이다	공부하는 셈이에요
동사, 완료	-(으)ㄴ 셈이다	끝나다 → 끝난 셈이에요
형용사	-(으)ㄴ 셈이다	싸다 → 싼 셈이에요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셈이에요
띄어쓰기	셈은 명사	끝난 셈이다
정확히 사실일 때	일반 서술	끝났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관형사형 체계를 따릅니다: 동사는 -는 셈이다, 완료된 행동은 -(으)ㄴ 셈이다, 형용사는 -(으)ㄴ 셈이다를 씁니다. ㄹ로 끝나는 어간은 ㄹ이 탈락하며, 셈은 띄어 씁니다.

실제 계산이든 비유적인 계산이든, 따져 본 결과로 결론을 내립니다: 이제 다 끝난 셈이에요 — 조금 남았지만 사실상 끝났다는 뜻입니다.

핵심은 그 말이 글자 그대로 정확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. 정말로 끝났다면 끝났어요라고 합니다. 셈이다는 대략적으로 말할 때 씁니다.

숫자나 조건을 따져 본 다음에 자주 옵니다: 하루에 두 시간이면 일주일에 열네 시간을 공부하는 셈이에요.

■ 예문

- 1 조금만 남았으니까 이제 다 끝난 셈이에요.
- 2 하루에 두 시간이면 일주일에 열네 시간을 공부하는 셈이에요.
- 3 배송비까지 생각하면 싼 셈이에요.
- 4 거의 매일 만드니까 직접 만드는 셈이죠.
- 5 두 명이 빠졌지만 다 모인 셈이에요.
- 6 그 정도면 성공한 셈입니다.

■ 비교

거의
거의는 ‘거의 다’라는 뜻이고, 셈이다는 ‘그렇다고 볼 수 있을 만큼’이라는 뜻입니다. 셈이다는 남은 차이를 채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립니다.
거의 끝났어요. (거의 끝남) / 끝난 셈이에요. (사실상 끝남)

-(으)ㄴ/는 것 같다
것 같다는 확실하지 않아서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고, 셈이다는 확신은 있지만 대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.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을 어렵히는 것입니다.
끝난 것 같아요. (끝난 것 같음) / 끝난 셈이에요. (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임)

-(으)ㄴ/는 것과 같다
같은 내용을 더 명시적으로, 다소 무겁게 말하는 방법입니다. 관용적으로는 셈이다가 더 자연스럽습니다.
끝난 셈이에요. / 끝난 것과 같습니다.

■ 주의

- ✗ 숙제를 다 했어요. 끝난 셈이에요.
- 숙제를 다 했어요. 끝났어요.
셈이다는 어려워서 말할 때 씁니다. 정말로 완료되었다면 일반 서술이 맞습니다.
- ✗ 거의 매일 만드는 셈이에요.
- 거의 매일 만드는 셈이에요.
ㄹ로 끝나는 어간은 관형사형 체계 전반에서와 마찬가지로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배송비까지 생각하면 싼셈이에요.
- 배송비까지 생각하면 싼 셈이에요.
셈은 명사이므로 관형사형 뒤에 띄어 씁니다.